

텍스타일 · 컨버터 - 신소재 개발하여 발표

일본의 “텍스타일 · 컨버터 · 에노모도(주) [Textile converter 本(株)]”는 이미 근 20년의 역사가 있어, 착실하게 판로를 넓혀오고 있다. 이 회사에는 4개의 사업부가 있으며, 그 중에서 이태리 · 텍스타일 사업부가 가장 활발하여 전사의 판매실적 중 26%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중심적인 사업부가 되어 있다.

이 사업부의 텍스타일 판매처는 대부분이 어패럴과 상사가 고객으로 되어 있으며, 이 사업부가 밖으로부터 구입해오는 룸 · 스테이트(looms state : 직기에서 떼어낸 상태)의 생지 직물은 하마마쓰 · 산지(浜松産地)를 비롯한 여러 산지에서 면, 리넨, 실크, 모와 같은 각종 천연섬유를 주로 한 소재들을 구입하여 “어떻게 부가가치(附加價值)를 크게 높이느냐가 텍스타일 · 컨버터의 역할이며 과제임”을 강조하고 있다. 또한 기획실에 있는 4명의 여성간부가 시즌마다 트렌드를 분석하면, 이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소재나 상품을 개발하여 각 방면에 제안하고 있다.

이 컨버터는 일본의 우수 창작(創作) 섬유제품만을 전시하는 JC(Japan creation)전시회에 첫 해에는 여러 많은 출품자가 공동으로 전시하는 종합구역에 출품하였었는데, 두 번째인 작년에는 면을 위주로 전시하는 코튼 · 존(cotton zone)에 2개의 작은 전시칸을 독점하여 전시하였다.

전시품은 “윈터 · 코튼(winter · cotton)”으로서 앙골라×코튼, 캐시미어×코튼을 선염한 팬시(fancy)로 만든 소재를 제안하였다. 다가오는 시즌의 트렌드(trend)에는 실크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실크×코튼, 코튼×울 등도 선을 보이고 있다.